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활용한 다문화 미술교육 연구 동향 분석 연구*

김선아, 박진희, 이현정, 정유진
한양대학교

A study on the research trends of multicultural art education using the text mining technique

Sunah Kim^{**}, Jinhee Park, Hyeonjeong Lee, Yujin Chung
Hanyang University

ARTICLE INFO

Article history:

Received Apr 30 2016

Revised Jun 15 2016

Accepted Jun 20 2016

Keywords:

multicultural art education,
research trend analysis, big data
analysis, text mining technique,
topic modeling

ABSTRACT

Recently, there has been an increasing need for the discourse of multiculturalism to reflect on the Korean situation of multicultural education without the notion of assimilating specific minority groups. In this respect, this research attempts to analyze the research trends of multicultural art education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an overview on how the discourse of multicultural art education has evolved and drawn on the implications for future research. In order to take on a more objective and statistical approach to the meta analysis of literature, this study uses the text mining technique, one of the big data analysis techniques which provides a framework for understanding and visualizing research trends based on the social network analysis of keywords appeared in research articles over time. The total number of 80 articles and doctoral dissertations published throughout 2000~2015 were collected and analyzed. The result can be summarized in two aspects. First, the keywords with high correlations show that there is a lack of research that investigates the underlying circumstances regarding Korean multicultural situations. Second, it is time to re-conceptualize multicultural art education based on the fundamental issues confronting Korean society. Future research should be geared more towards the inquiry of the primary concepts and values of art in multicultural education. This study will broaden our understanding of the research trends of multicultural art education and establish the ground on which future research agendas can be developed.

* 이 논문은 2014년도 정부재원(교육부)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한국사회과학연구지원사업)을 받아 수행된 연구이다(NRF-2014S1A3A2044609).

이 논문은 2016 한국다문화교육학회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전반적으로 수정·보완한 연구이다.

** Corresponding author, sakim22@hanyang.ac.kr

I. 서론

2015년 초중등 학교의 다문화가정 학생은 8만 2천여 명으로 전체 학생 대비 1.35%에 해당한다. 또한 초등학교의 다문화가정 학생의 비율이 2%를 넘어서는 등 향후 초중등 학교에 진학하는 다문화가정 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행정자치부, 2015). 이에 교육부(2016)는 지난 3월 '2016년 다문화교육 지원 계획'을 발표하여 다문화학생의 가정 배경, 출생지 등 특성을 고려한 지원을 통해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평등한 교육을 실현함으로써 다문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이와 같이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 다문화 사회의 흐름 속에서 다문화교육의 필요성은 간과할 수 없는 당면 과제가 되었다. 이는 다문화교육이 서로 다른 인종, 언어, 종교, 계층, 문화의 다양성과 이질성이 함께 공존하며 상호보완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이자 사회문화적 환경이 되기 때문이다(차윤경, 2008).

미국, 호주, 캐나다 등 한국보다 앞서 다문화를 경험하였던 서구의 국가들은 일찍이 다문화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였고, 그 속에서 다문화교육의 이념과 목표, 교육과정, 교육대상 등에 대한 논의와 실천이 국가별로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다(최충욱, 2009). 하지만 21세기에 접어들면서 다문화정책의 목표 설정에 있어 많은 혼란을 겪게 되면서(교육과학기술부, 2008), 서구의 다문화교육 논의도 주춤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한국에서는 21세기 들어서면서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이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되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다문화교육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사회와 학교 속에서 빠르게 증가하는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교육적 해법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은 미술교육 안에서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다문화 미술교육은 맥락주의적인 관점에서 미술이 사회, 문화, 정치, 경제의 산물로서 삶의 문제에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박순덕·김영순, 2014). 또한 미술 수업을 통하여 다양한 문화적 배경의 학생들이 개인적인 경험과 삶의 맥락에 기초하여 자신을 표현하고 타인과 공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수의 특별한 학습자가 아닌 모두를 위한 교육을 지향한다(심영옥·최서윤, 2015). 이러한 다문화 미술교육의 특성은 다문화가정, 탈북자, 이주 노동자 등 특정한 대상에 한정하여 동화주의적 혹은 수혜적 관점에서 다문화교육의 성격을 규정하는 기존의 한계를 극복하고 확장된 관점에서 다문화교육의 의미를 모색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근 한국의 다문화주의에 대한 비판적 관점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논의되고 있으며, 한국적 특수성을 반영하되 특정 소수 집단의 동화 혹은 사회적응에 제한되지 않은 다문화 교육 담론 형성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홍규, 2015; 조희원, 2014; 최충욱·조인제, 2010; 최호림, 2015). 이러한 시점에서 본 연구는 향후 다문화 미술교육의 한국적 담론을 모색하

기 위해서 이제까지 미술교육 분야에서 다문화교육을 연구해 온 방식과 흐름을 되돌아보아야 한다는 필요성에서 출발하였다. 특히 다문화 미술교육에 집중하여 연구동향을 분석한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인어서 현재 미술교육 안에서 다문화교육을 개념화하는 방식에 대한 반성적 성찰을 가능하게 하는 구체적인 자료가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필요성에 따라 본 연구는 이제까지의 다문화 미술교육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었던 핵심 개념의 변화 추이를 파악함으로써, 다문화 미술교육 연구의 동향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지난 16년 동안의 연구에 등장하는 키워드 간의 네트워크 분석을 토대로 이제까지의 연구 흐름을 파악하고, 향후 다문화 미술교육 연구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여 논의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다문화 미술교육의 전반적인 흐름과 빅데이터 분석방법의 특성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또한 한국에서 다문화 미술교육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는 2000년부터 2015년까지의 학술 논문을 빅데이터 분석 중 비정형 데이터 분석 기법의 하나인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텍스트마이닝 기법은 통계적인 접근을 통하여 개념 간의 연결성과 영향 관계를 파악하고 이를 시각화함으로써 데이터가 보여주는 의미를 도출하는 데에 유용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제까지의 다문화 미술교육 연구가 어디에 강조점을 두고 진행되어왔는지를 시각적으로 제시하고, 향후 주목하여야 할 연구 주제가 무엇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을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다문화주의는 사회적 현실에 따라 지향하고 강조하는 이념과 목표, 정책, 그리고 교육의 실천과제와 방법론이 다르다(이형하 외, 2015). 그러나 지금까지 한국의 다문화주의는 우리나라의 현실 상황을 심층적으로 연구할 겨를도 없이, 서구의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맥락 속에서 형성된 담론과 정책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흘러왔다. Banks(2008, 2009) 등 서구의 학자들이 주장하는 다문화교육의 개념은 남녀 학생 모두와 다양한 인종과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 그리고 특수한 학습자들에게 평등한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도록 하는 학교 교육 및 교육과정의 개혁 운동을 의미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평등한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는 것 보다 소수집단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도록 한다는 단기적 목표 아래 다수 집단, 주류 집단이 그들을 이해하고 도와줘야 한다는 ‘모호한’ 동화주의적 교육에 머무르고 있다(박휴용, 2016). 같은 맥락에서 다문화 미술교육 연구 또한 다양한 소수 집단의 스펙트럼을 고려하지 못한 채 특정 집단을 위한 수혜적인 프로그램 개발이나 세계의 이국적 미술 문화에 관한 교육으로 한정되어 다루어져 오는 경향이 있다. 이에 다음에서는 다문화 미술

교육 연구의 전개 과정과 주요 논의의 특징을 살펴보고 연구 동향 분석을 위한 문헌분석의 의의와 방법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1. 다문화 미술교육 연구의 전개

다문화 미술교육은 다양한 민족과 인종의 평등한 권리를 주장했던 1960~70년대 미국사회의 시민운동으로부터 본격화되었다. 특히 포스트모더니즘의 등장으로 확산되었던 다원주의에 기초하여 소수 집단의 문화와 소서사시를 강조하는 새로운 미술교육의 운동으로 이어졌다(이옥선, 1999). 이후 1980년대에는 학문중심미술교육(DBAE)의 서구 중심적인 주제와 학문적 체계에 대한 지나친 강조를 비판하면서 개인의 삶과 연결되는 교육으로서 다문화 미술교육이 더욱 확장되게 되었다(김영희, 2010; 양정숙, 2000). 이러한 서구의 미술교육 역사는 20세기 중반 시작된 다문화 미술교육 담론이 사회적 변화와 미술교육의 흐름과 발맞추어 확장되고 발전되어왔음을 보여준다.

한국의 다문화 미술교육 연구는 서구보다 뒤늦게 시작되었으며 1990년대 세계화의 대두와 함께 다른 문화권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면서 시작되었다(안혜리, 2011). 2000년대 이후 이주노동자, 국제결혼 이주 여성의 증가 등의 상황으로 인해 한국의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이 가시화되면서 다문화 미술교육에 대한 연구도 본격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맥락적 접근을 강조하는 다문화교육에서 미술교육이 갖는 핵심적 담론은 미술을 통해 문화적 신념과 가치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직접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다문화 사회에 요구되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탐구와 다양한 문화 간의 교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손지현 2010). 다문화교육은 학생들 스스로 자신의 문화를 분석하고, 타인의 문화를 이해하며 이를 통해 현재를 바라보고, 미래에 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Campbell, 2010, 2012). 이러한 맥락에서 미술은 사회적으로 구성된 문화의 속성을 이해하는 가운데 다양한 가치를 판단하며 스스로 지향점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다문화 교육의 이상과 목적을 실현하는 중요한 도구가 된다.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다문화 사회에서 다문화 미술교육은 타인을 존중하고 이해하기 위해 내가 잘 알지 못하는 것을 경험하고 발견하고, 그것을 개인과 사회로 확장시켜 비판적이고 반성적으로 되돌아볼 수 있도록 한다. 이처럼 미술은 개인의 문화들, 사회의 문화들을 연결하는 다리로서 삶과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삶 안에서 그리고 사회 안에서 밀접하게 관계되어진다(손지현, 2014). 서덕희 외(2015)는 다문화교육을 이해할 수 있는 핵심 개념이 ‘문화’임을 강조한 바 있다. 여기에서 문화는 고정되거나 박제화되지 않은 상호적이고 역동적인 개념이다. 즉 문화와 문화가 서로 만났을 때 생기는 갈등과 충돌, 저항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 보며 타문화에 대한 이해를 발전시키는 것이 다문화교육의 핵심인 것이

다(김선아, 2011). 다문화 미술교육을 통해 비주류 학생들은 자신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에 도달할 수 있으며, 소수집단의 관점에서 개념, 쟁점, 사건을 조망해봄으로써 차별 받는 현실에 대해 비판적이고 주체적으로 사고할 수 있게 된다(박순덕·김영순, 2014). 즉 세상을 읽고 이해함으로써 사회 전반의 이슈에 대해 연결 지어 파악하게 되고, 비주류와 주류의 경계, 그 안에서 나타나는 부조리함과 불평등을 비판적으로 탐구하는 가운데 개인의 삶 속에서 실제적인 문제를 다루는 교육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미술이 가지는 이와 같은 사회문화적 속성은 다문화 미술교육이 도구적인 성격을 가짐과 동시에 미술의 본질적인 가치에 기초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제까지의 다문화 미술교육 연구는 다문화 사회 속에서 미술교육이 가지는 독자적인 의미와 가치에 대한 개념화와 담론화의 과정을 거치지 못한 채 당면한 현상에 대한 처방적인 접근으로 다루어져 온 경향이 있다. 미국의 다문화 미술교육의 개념을 차용하여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왔지만, 한국의 다문화적 상황에서 대두되는 이주민의 타자화, 대상화의 과정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부재한 상태에서 교육 현장에서의 구체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기초적인 연구가 미흡하였던 것이다(김성숙, 2011). 예를 들어 학교 교육과정 안에서 다루어지는 다문화 미술교육을 살펴보면 반성적이며 철학적인 교육과정 개발이 부족하여 다양한 학습자의 공존과 상상, 간문화적 소통으로서의 미술과 미학 등의 측면을 중점적으로 다루지 못하는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이민정, 2014). 즉 한국의 다문화적 상황이 미술교육에 던지는 과제에 대한 실제적이고 경험적인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상적인 담론이나 일회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머물러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최근 다문화 미술교육을 실행함에 있어서 문화적 분리주의적 시각에서 벗어나서, 대상을 문화적 타자에 한정하지 않고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다문화 시대의 문화의 다양성을 수용하고 집단 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넓은 의미로서 다문화 미술교육이 확장되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김형숙·남기현, 2012).

고흥규(2015)는 한국적 상황을 배제한 현재 다문화 미술교육 담론은 표면적으로는 다문화주의를 표방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동화주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결혼이주민 자녀 및 소수 집단만을 위한 교육 혹은 문화 복지 정도로 오인되고 있는 부분이 크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제까지의 다문화 미술교육 연구를 반성적으로 조망하고 현재의 위치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하여 한국 사회의 이슈와 경험을 반영한 다문화 미술교육의 어젠다를 탐색하고 미술교육의 사회적 역할을 새롭게 정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2. 문헌 분석과 빅데이터의 활용

다문화 교육에 관한 연구 경향 분석 연구에서 김민환(2010)은 유아교육과 미술교육 분야에서 선도적으로 많은 논문이 발표되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미술교육 분야에서 다문화 교육에 대해 활발한 연구들이 논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다문화 미술교육 연구에 대한 연구동향 분석연구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박순덕, 선곡유화, 이영선(2013)이 국내 다문화 미술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선행 연구들을 분석한 연구가 있기는 하나, 주제가 프로그램 개발 연구에 한정되어 있고 분석 대상이 8편에 그쳐 전반적인 연구 동향을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에 비해 다문화교육 분야에서는 다양한 방향에서 문헌분석 연구들이 진행되어왔다. 이를 요약하면 다문화 교육 연구의 시기, 대상, 주제별 경향성을 분석한 연구(이기용·이건남, 2013; 장인실·차경희, 2012; 전재영, 2011), 주요 주제 분야별 동향을 분석한 연구(김민환, 2010), 정책연구, 학술연구, 현장연구 등 분야별 다문화교육 연구 동향을 분석한 연구(최충욱·조인제, 2010),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논문을 연구유형, 대상, 방법, 주제별로 분석한 연구(채영란·유승우, 2014) 등이 있다. 이와 같은 메타 분석 연구들은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선행 연구들의 다양한 측면을 살펴보고 전반적인 동향을 파악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분석에 대한 분석인 메타분석은 특정 연구문제에 대해서 이미 수행된 선행연구들의 결과들을 통합하여 통계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으로서 원자료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단순화시키는 제한점을 갖는다(노정순, 2008). 결과에 초점을 두고 있어 선행연구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상호작용 효과 혹은 매개변수의 개입 등을 고려하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기존의 문헌분석 연구는 특정한 연구자의 분석 기준에 한정되어 분석틀의 설정 근거가 다소 취약하고 제한적인 연구 결과를 도출하는 방법론적인 한계를 갖는다. 따라서 메타분석이 갖는 방법적인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보다 다양한 문헌 연구 방법을 탐색하고 시도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 간의 다문화 미술교육 연구의 흐름을 통합적, 맥락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빅데이터 분석에 주목하였다.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정보통신 기술이 다른 영역들과 융복합 되면서 방대한 양의 데이터들이 생성됨에 따라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현안들과 관련한 빅데이터의 활용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빅데이터 분석이 기존 기술로는 처리할 수 없었던 데이터들을 조작,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기 때문이다(이성훈·이동우, 2013). 최근 여러 분야에서 빅데이터 기법을 활용한 연구들이 시도되고 있는데 김동성, 김종우(2014)는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논문의 서지정보 및 인용정보를 활용한 연구동향 분석 연구를 통해 현재까지의 클라우드 컴퓨팅 연구 흐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해석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또한, 김선아 외(2015)는 빅데이터의 분석 기법 중 하나인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활용하여 미술과-국어과 교육과정에서 각 교과와 융복합 공통 키워드를 추출한 후, 그 관계성을 시각화함으로써 서로 유의미한 군집을 도출하고 두 교과 간 융복합 교육의 타당성을 제시한 바 있다. 현재는 문헌분석을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연구가 초기 단계에 있지만 향후 다양한 시도와 탐색을 통해 교육연구 분야의 연구 폭을 넓힐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다.

이처럼 교육연구 분야에서 빅데이터 분석이 연구방법론으로서 가지는 장점을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다. 첫째, 비정형화된 키워드와 핵심어를 추출하고 개념들 간의 관련성과 상호작용성을 통계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이다(이수상, 2014). 빅데이터를 활용한 문헌분석 연구는 데이터들의 상호작용성과 역동적인 흐름을 볼 수 있으므로 연구동향에 따른 방향성을 제시하고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유용하다(김동성·김종우, 2014). 둘째, 데이터의 시각화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비정형 데이터 분석을 통해 유의미한 해석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정형화된 모델로 추상화하는 작업이 중요하다(장재영, 2013). 이 때 정해진 분석틀 없이 통계적인 과정을 통해 도출된 시각화의 결과는 연구자로서 하여금 데이터의 형질과 특질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며, 이에 대한 연구자의 전문가적인 해석과 질적 접근은 새로운 의미 생산을 가능하게 된다. 이와 같이 빅데이터를 활용한 문헌분석 연구는 데이터를 읽고, 분석하며,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의 범위가 넓기 때문에 다문화 미술교육 연구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육 분야의 선행 연구를 분석하기 위한 의미 있는 연구방법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빅데이터 분석은 다양한 분야의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여 여러 가지 사용방식에 따라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도구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 기법 중 하나인 텍스트마이닝(Text Mining)은 인간의 언어로 쓰인 비정형 텍스트에서 자연어 처리기술을 이용하여 유용한 정보를 추출하는 것으로 비정형 텍스트의 연계성을 파악하여 분류 혹은 군집화하거나 요약하는 등 빅데이터 속에 숨겨진 의미 있는 정보를 발견하기 위해 주로 사용된다(송태민·송주영, 2016). 텍스트마이닝은 자료 처리 과정(data processing)과 자료 분석(data analysis)으로 나누어지는데, 자료 처리과정에서는 정보 검색, 정보 추출, 자연어 처리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가공하며, 자료 분석과정에서는 데이터 마이닝, 기계학습, 통계학 등을 활용하여 텍스트로부터 의미 있는 정보를 추출한다(구주나·김경아, 2014). 이러한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통하여 다양한 연구들에 사용된 복잡하고 다양한 언어와 개념들을 비정형 데이터로 처리하고 통계적으로 분석을 함으로써 기존의 연구 동향에 대한 의미 있는 정보를 새롭게 조직하고 생성할 수 있다.

Ⅲ. 연구 방법

1. 분석대상

본 연구에서는 2000~2015년도까지 총 16년간의 학술지 논문과 박사학위논문의 초록과 키워드들을 분석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이 때 논문의 전문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저자가 연구의 핵심으로 요약한 초록과 대표적인 주제로 선별하여 제시한 키워드만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박사논문과 학술지 논문의 전반적인 질적 수준의 차이는 고려하지 않았다. 논문 검색 및 자료 수집은 국회도서관, RISS, DBPIA, KISS, 교보문고스콜라, 뉴논문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였다. 구체적인 검색 조건으로는 ‘다문화 미술교육’이 제목과 키워드 안에 명시된 논문을 중심으로 하였으며, 논문 제목에 ‘다문화’, ‘미술교육’, ‘미술’, ‘교육’이 떨어져있더라도 동시에 등장할 경우 수집 대상에 포함하였다.

연구의 추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16년간의 연구를 5~6년을 주기로 3개 집단으로 분류하여 선행연구를 수집하였으나, 2000년~2004년에 발행된 연구가 총 4편에 불과하여 이를 2000년~2009년의 연구로 통합하여 분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00년~2009년의 초기 10년과 2010년~2015년의 최근 6년에 걸친 선행연구를 2집단으로 분류하고, 집단 간의 변화를 통하여 다문화 미술교육 연구의 동향을 논의하고자 하였다. 최종적으로 학술지 75편, 박사학위 5편, 총 80편이 수집되었으며 그 중 논문의 초록이 없는 12편을 제외한 총 68편의 논문을 수집하였다. 2000년~2009년 키워드가 464개, 2010년~2015년 키워드가 1,308개로, 연도별 분석 키워드 수의 합 1,772개에서 중복되는 키워드 340개를 제외한 전체 분석 키워드 1,432개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 수집 현황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Data Collection

연도	학술지	박사학위논문
2000-2009	19	1
2010-2015	56	4
합계	75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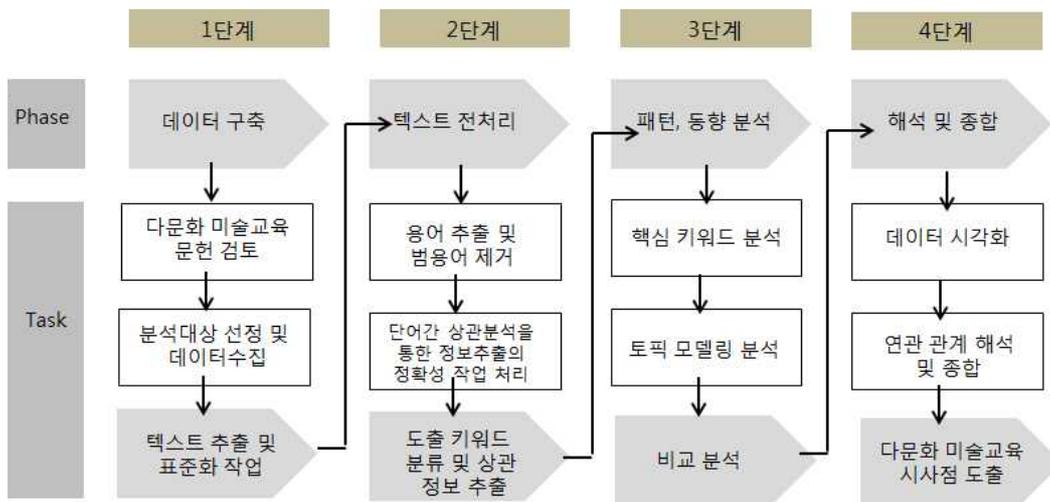
2. 분석 방법 및 단계

본 연구에서는 자료 분석(data analysis)과정에서 R을 활용하여 전체 키워드들 간의 연결중심성이 높은 핵심 키워드 10개를 뽑았으며 연도별 주요 키워드들의 연결중심성 및 출현빈도

를 살펴보았다. 핵심 키워드는 텍스트마이닝에서 주로 사용되는 연결중심성(Degree Centrality)을 중심으로 선정되었다. 용어들 간의 사회적 네트워크 안에서 연결 구조를 계량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으로서 연결중심성은 얼마나 많은 용어들과 연결되어 있는가를 노드별 연결의 수로서 측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핵심 키워드 간의 네트워크 분석을 토대로 시간에 따른 연구 주제의 동향을 파악하는데 효율적인 기법인 토픽 모델링(Topic Modeling)을 활용하여 주제 분석을 실시하였다. 토픽 모델링이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연구들 안에서 독립적인 토픽들이 공존하거나 공유되는 것에 주목하여 그들 간의 연결 관계를 통하여 전체 집합 속 부분적인 토픽을 분석할 수 있는 기법으로 유의미한 데이터의 시간의 흐름에 따른 동향 파악에 효율적인 분석 방법 중 하나이다(김현희, 이해영, 201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서로의 관계가 유의미한 토픽끼리 묶인 의미 있는 집합들을 추출함으로써, 다문화 미술교육 안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의 범주는 무엇이며, 그 안의 세부 키워드들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즉 단순히 키워드 출현의 빈도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의미적 주제를 처리하는 분석 과정을 통해 관심이 많은 주제(hot topic)와 적은 주제(cold topic)를 살펴봄으로써(장종인, 백종문, 2016) 다문화 미술교육의 연구 동향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시도한 것이다.

본 연구의 절차는 4단계의 과정을 거쳐 진행되었다. 1단계는 데이터 구축의 단계로서, 자료 수집 시 필요한 수집 기준 설정을 위해 다문화 미술교육 문헌을 검토하였다. 일정한 수집 기준으로 논문 제목, 초록, 키워드 등 기본 정보를 엑셀에 취합하였고, 표준화 작업을 거친 후 텍스트를 추출하였다. 표준화 작업이란 전처리 과정에서 오류 해석을 줄이기 위해 어떤 기준으로 텍스트를 추출할지를 연구자가 설정하는 과정을 말한다. 2단계는 데이터 전



(Figure 1) Research Process

처리의 단계로써 중의어, 동사, 범용어, 숫자, 알파벳이 제외된 자연어만을 고르는 작업을 추가적으로 진행하였고 단어 간 상관분석을 통한 정보추출의 정확성을 위한 작업 처리 과정을 거쳤다. 여러 단계를 거쳐 단어들을 정제하였으며 최종적으로 키워드들을 분류한 후 상관 정보를 도출하였다. 3단계는 패턴 및 동향을 분석하는 단계로서, 정제된 키워드들을 통해서 연구 주제어 간의 상관관계에 따른 패턴을 도출하고 시각화하였다. 4단계에서는 정량적 분석의 결과를 해석하여 향후 연구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IV. 연구 결과

본 연구에서는 향후 다문화 미술교육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고자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활용하여 지난 16년간의 연구 동향을 파악하고 핵심 개념 및 연구주제의 변화 추이를 분석하였다.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수집된 전체 논문의 초록과 주제어에서 주요 용어들을 추출하였으며, 연결중심성이 높은 ‘다문화’, ‘교육’, ‘문화’, ‘사회’, ‘미술’, ‘미술교육’, ‘문제’, ‘이해’, ‘구성’, ‘프로그램’의 10개 핵심 키워드들을 <Table 2>와 같이 도출하였다. 이를 토대로 핵심 키워드의 관계 분석을 중점으로 함께 사용되는 용어들의 변화 추이를 확인하고 다문화 미술교육 연구 동향을 분석하였다.

<Table 2> Key Words

핵심 키워드	연결중심성(Degree Centrality)
다문화	1263
교육	1178
문화	1159
사회	1042
미술	971
미술교육	938
문제	827
이해	786
구성	752
프로그램	749

1. 핵심 키워드와 동시 출현하는 용어의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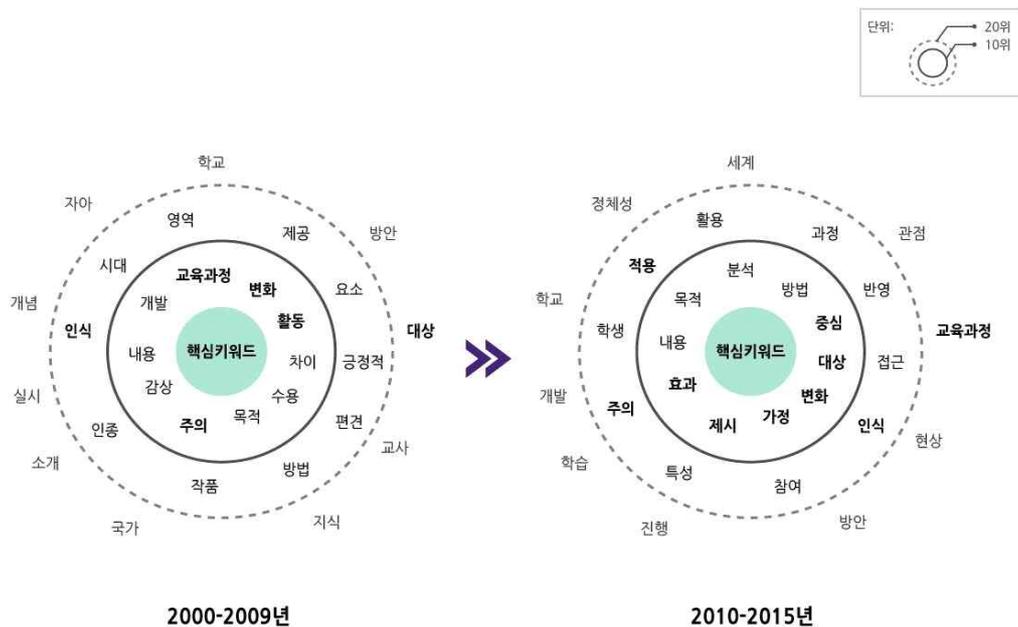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연결중심성을 기반으로 앞서 도출한 핵심 키워드들과 동시 출현하는 용어

〈Table 3〉 High Ranked Co-appearing Term

2000년 ~ 2009년			2010년 ~ 2015년		
키워드	동시 출현 용어	연결중심성	키워드	동시 출현 용어	연결중심성
교육과정	283	10	분석	905	75
변화	252	6	방법	741	39
개발	242	11	목적	736	28
활동	237	25	중심	674	31
내용	235	6	내용	668	32
차이	231	5	대상	644	30
감상	229	13	효과	642	39
수용	217	7	변화	630	25
목적	214	5	가정	620	45
주의	212	5	제시	613	24
영역	208	6	활용	611	20
제공	208	4	과정	597	29
시대	204	5	적용	595	31
요소	203	6	반영	588	19
인식	203	7	학생	573	52
긍정적	197	6	접근	563	33
인종	192	3	주의	561	24
편견	192	12	인식	561	17
작품	190	6	특성	552	14
방법	187	7	참여	550	13
학교	185	4	세계	546	12
자아	183	3	정체성	541	46
방안	183	7	관점	535	23
개념	182	6	학교	534	17
대상	181	3	교육과정	525	36
실시	181	6	개발	518	49
교사	176	8	현상	514	12
소개	175	5	학습	511	35
지식	174	4	방안	503	20
국가	172	5	진행	502	10

들의 연도별 변화 추이를 파악하였다. <Table 3>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초반부에는 ‘교육과정’, ‘차이’, ‘수용’과 같은 단어들이 높은 연관성을 가지고 나타났으나, 후반부에는 ‘분석’, ‘대상’, ‘효과’와 같은 단어들이 새롭게 등장하여 다문화 미술교육 연구의 성격이 확연히 다르게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2000년~2009년, 2010년~2015년까지 주요 용어들의 연결중심성과 출현 빈도의 변화 추이를 확인하면, 과거 논문 초록에서 출현하였으나 사용되지 않은 용어들과 새롭게 출현한 용어들의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연결중심성은 다른 용어들보다 높지만 출현 빈도가 낮거나, 이와 반대로 출현 빈도는 높으나 연결중심성이 낮은 용어들의 확인이 가능하다. 용어들의 변화에 있어 연결중심성의 순위에 따라 중요도의 변화를 판단하였으며, 연결중심성이 높은 30위권의 용어들 가운데 연구자의 관점에서 의미 있는 용어들의 등장이나 상승에 주목하여 분석하였다.

2009년 이전의 연구에서 등장하는 ‘차이’, ‘수용’, ‘인종’, ‘편견’, ‘국가’와 같은 용어들은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에 맞추어 다문화 미술교육의 방향을 수립하기 위한 논의에서 나타난 용어들일 것이다. 하지만 2010년~2015년 사이의 연구에서 이러한 용어들이 상승하고 발전하기 보다는 연결중심성 순위 목록에서 사라지고 있음은 주목할 만하다. ‘참여’, ‘정체성’과 같은 용어들이 새롭게 등장하기는 하나 대부분의 주요 용어들이 ‘분석’, ‘효과’, ‘적용’, ‘개발’ 등과 같이 개발 연구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최근 한국에서 다문화 미술교육에 관한 연구가 양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지속적으로 다루어지는 핵심적인 어젠다를 갖지



(Figure 2) Changes in Co-appearing Terms

못한 채 포괄적으로 다루어져온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다문화 미술교육 연구의 핵심 키워드와 동시 출현하는 용어들의 변화 추이를 도식화하면 <Figure 2>와 같다.

2. 토픽 모델링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미술교육 연구논문 초록들에서 중심이 되는 주제와 관련 키워드를 추출하기 위해, R에서 패키지로 제공되는 “topicmodels”을 활용하여 LDA(Latent Dirichlet Allocation) 기반 토픽 모델링 알고리즘을 사용한 토픽 분석을 진행하였다. <Table 4>는 2000년부터 2015년까지 다문화 미술교육 연구들에 대한 토픽 모델링의 결과이다. 이를 바탕으로, 다문화 미술교육 연구와 관련된 주요 주제들이 무엇이며 이와 관련된 키워드들의 변화 추이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토픽 모델링을 통해 추출된 5개의 주제와 이를 구성하는 단어는 <Table 4>와 같다. 각 주제를 구성하고 있는 연관 단어를 중심으로 2000년부터 2015년까지 다문화 미술교육 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졌던 주제의 의미를 해석해 볼 수 있다. ‘다문화’, ‘문화’, ‘미술교육’이 상위에 랭크된 주제 1은 ‘사회’, ‘이해’, ‘역량’, ‘교육과정’, ‘학습’ 등의 연관 단어로 구성되어 있어 학교 안에서 문화적 역량을 개발하는 미술교육을 중심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문화’, ‘다문화’, ‘정체성’이 상위에 랭크된 주제 2는 ‘프로그램’, ‘박물관’, ‘사회’, ‘변화’ 등의 단어와 연관 관계를 이루며 박물관 등의 맥락에서 정체성과 인성을 다루는 보다 포괄적인 사회적 관점에서의 미술교육이 중심이 된다. 주제 3에서는 ‘다문화’, ‘미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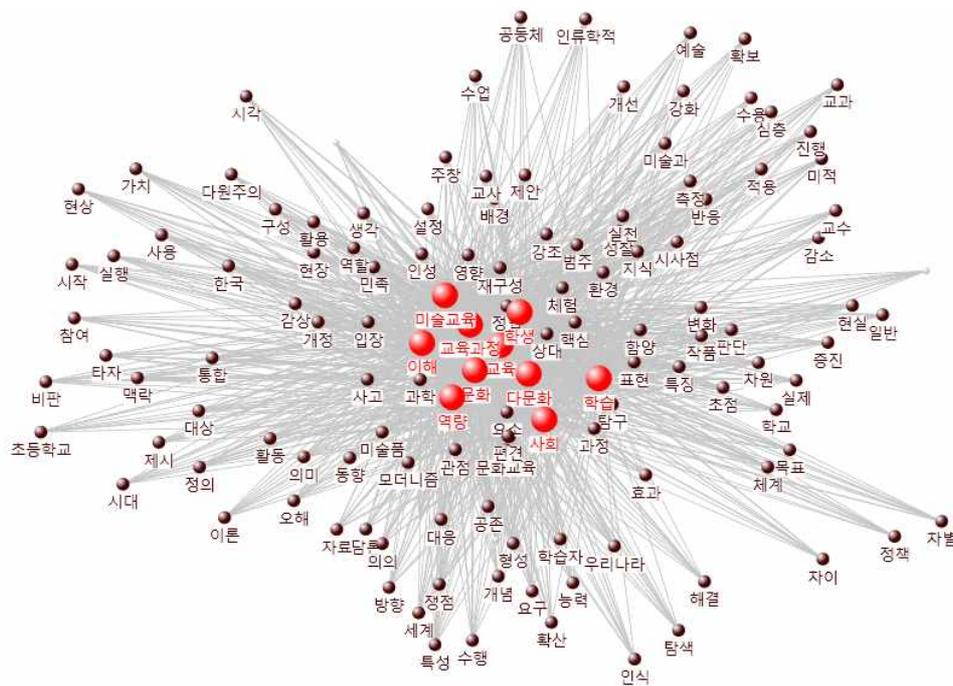
<Table 4> Result of Topic Modeling

순위	주제 1	주제 2	주제 3	주제 4	주제 5
1	다문화	문화	다문화	다문화	교육
2	문화	다문화	미술	프로그램	문화
3	미술교육	정체성	유아	개발	조형
4	교육	프로그램	사회	미술교육	다문화
5	사회	박물관	미술교육	미술	대학
6	이해	아동	문화	가정	미술교육
7	역량	미술교육	활동	치료	이해
8	교육과정	인성교육	문제	효과	중심
9	학생	사회	프로그램	자아	교육과정
10	학습	변화	아동	집단	미술

‘유아’의 주요 단어들이 ‘활동’, ‘프로그램’, ‘아동’ 등과 연관 관계를 가지며 유아 및 아동교육 맥락에서의 다문화 미술교육이 하나의 주제를 이루고 있다. 주제 4에서는 ‘다문화’, ‘프로그램’, ‘개발’이 상위에 랭크되어 있고 ‘가정’, ‘치료’, ‘효과’ 등의 단어와 연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보아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한 미술 치료 프로그램 개발이 주로 다루어진다. 마지막으로 ‘교육’, ‘문화’, ‘조형’이 상위에 랭크된 주제 5는 ‘대학’, ‘이해’, ‘교육과정’ 등의 단어로 구성된 고등교육에서의 다문화 미술교육 연구가 하나의 주제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토픽 모델링을 통하여 추출된 주제 안에서 동시 출현하는 단어들의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여 시각화하고, 주제를 대표할 수 있는 논문을 선정하여 그 내용을 고찰함으로써 연구 결과로 도출된 주제가 미술교육 연구에 가지는 의미를 보다 구체화하고자 하였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5개의 주제들은 학교, 박물관, 유아 및 아동교육, 미술치료, 고등교육 등 각기 다른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미술교육을 중심으로 다문화 미술교육 연구의 주제가 분류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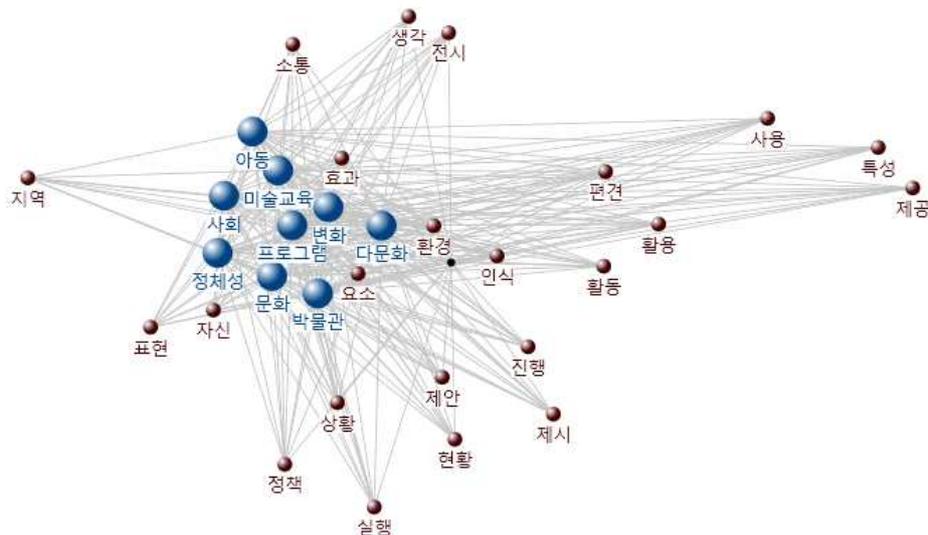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주제 1을 학교 교육의 맥락에서 ‘문화역량을 위한 다문화 교육과정’으로 해석하였다. ‘학생’, ‘학습’, ‘이해’의 단어들과 연관 관계를 가지는 주제 1은 학교 교육과정 안에서 다문화 사회에 필요한 역량과 다문화 감수성의 개발을 위한 미술교육의 내용과 방



(Figure 3) Topic 1: Multicultural Curriculum for Cultural Compete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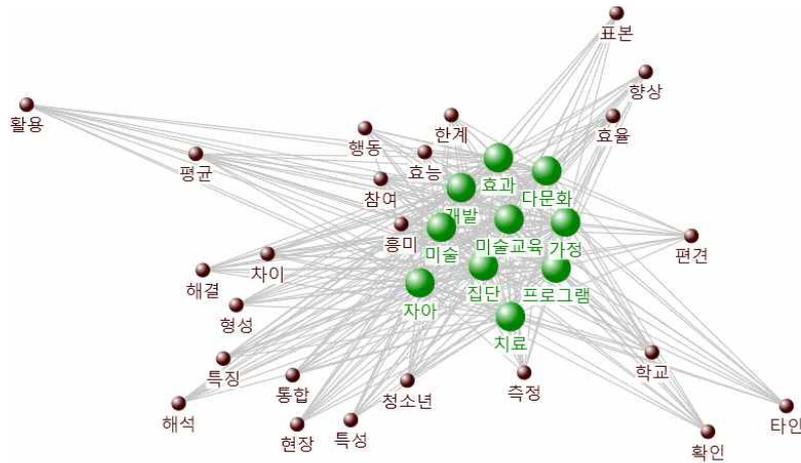
법을 다루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주제를 다루는 대표적인 사례로서 박순덕과 김영순(2012)은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미술과 교육과정을 분석하여 미술교육 안에서 다문화 교육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반영할 것인가를 논의하고 있다. 특히 현재 교육과정의 목표, 내용, 교수-학습, 평가 영역에 다문화 교육의 개념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을 밝히고, 미술을 통해 사회적 맥락을 이해하고 다양성이 공존하는 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미술과 교육과정이 변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외에도 반편견 교육 등 다문화교육의 관점에서 교과서를 분석(조태현, 김경식, 2009)하거나, 미술 교사교육을 위한 다문화 감수성과 역량 개발에 관한 연구(김선아, 2014) 등이 주제 1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주제 1에 동시 출현하는 단어들의 네트워크 분석을 시각화한 결과는 <Figure 3>과 같다.

주제 2는 박물관 교육의 맥락에서 '정체성을 위한 다문화 프로그램'으로 종합될 수 있을 것이다. 문화 다양성과 정체성의 측면에서 박물관, 미술관은 다문화 미술교육 연구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학교 밖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포괄적인 다문화 교육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주제 2 안에 '변화'와 같은 용어가 포함되어 있음은 다문화 미술교육 혹은 박물관 교육 안에서 문화와 정체성의 개념이 전통이나 역사에 고정되어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김정희(2013)의 연구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최근 다문화 사회에 도래와 함께 문화 간 충돌과 갈등을 줄이고자 하는 노력이 일어나고 있으며, 개인의 문화 정체성을 존중함과 동시에 사회 통합을 이루기 위한 방안이 박물관, 사회적 기업 등 다양한 맥락에서 연구되고 있다. 정혜연(2014)의 연구 또한 문화적 포용력을



(Figure 4) Topic 2: Multicultural Program for Identity

차원에서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문제 상황을 진단하고 미술매체를 활용하여 긍정적인 효과를 도출하고자 하는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다. 주제 4 안에서 동시 출현하는 단어들의 네트워크 분석을 시각화한 결과는 <Figure 6>와 같다.



(Figure 6) Topic 4: Therapeutic Approach in Multicultural Art Education

마지막으로 ‘조형’, ‘대학’, ‘교육과정’ 등의 단어들로 구성된 주제 5는 고등교육의 맥락에서 ‘조형 대학에서의 다문화 교육과정 연구’로 종합될 수 있다. 세계화,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에 따라 시각예술 혹은 조형 대학에서 변화하는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대학교육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윤민희(2013)은 다문화 시대에 조형교육이 필요한 이유를 다양한 문화권에 대한 이해와 타인의 삶에 공감할 수 있는 능력과 시각을 갖추기 위한 것으로 보고 이를 위한 대학 교육과정 연구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한편 세계화 시대에 문화예술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국내 조형 대학에서 문화 정체성과 전통적 조형의식에 대한 이해를 강화하여야 함을 주장하는 연구도 찾아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주제 5 안에서 동시 출현하는 단어들의 네트워크 분석을 시각화한 결과는 <Figure 7>과 같다.

이상과 같이 텍스트마이닝 분석을 통한 문헌분석은 상관관계가 높은 키워드를 도출, 분류하는 과정에서 기존 연구의 주제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 토픽 모델링을 활용한 분석 결과 2000년~2015년 사이에 유아부터 고등교육까지의 다양한 학교급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 미술교육 연구가 이루어져왔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미술을 통한 다문화적 역량과 감수성의 개발이 인간의 성장 전 과정에 있어 폭넓게 요구되고 있으며 적용 가능성을 보여준다. 하지만 기존의 연구들이 주로 교육과정 분

게 찾기 어려운 복잡한 문제로서 타당한 의사결정을 위한 기초 자료가 요구되는 영역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미술교육 연구의 동향을 보다 객관적이고 통계적인 기반에서 탐구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00~2015년에 발표된 학술지 및 박사 학위 논문 80편 가운데 68편을 분석 대상으로 그간의 연구에서 사용된 키워드를 도출하고 키워드 간의 상관관계를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다문화 미술교육의 연구 동향과 향후 연구 방향에 시사하는 바를 다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여러 선행 연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한국의 다문화 상황을 정확히 분석하고 반영하는 연구가 미흡하다. 이는 핵심 키워드와 동시 출현하는 용어들 가운데 ‘교육과정’, ‘개발’, ‘대상’, ‘효과’ 등의 용어가 상위에 랭크되는 것에도 알 수 있다. 2009년 이전의 연구에 등장하였던 ‘차이’, ‘자아’, ‘편견’과 같은 용어들이 이후의 연구에서 중요도가 상승하기 보다는 오히려 연결중심성의 순위가 떨어지는 것을 볼 때, 초기의 다문화교육의 담론들이 충분히 확장되거나 심화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다원화되는 한국 사회에서 당면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과제에 대한 보다 면밀한 분석과 이에 대한 미술 교육적 해법을 찾기 위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이제까지 다문화 미술교육 연구에서 다루어 온 주제들은 유아교육과 고등교육을 포괄하는 폭넓은 학교급을 대상으로 이루어져왔다. 이는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 미술교육의 방법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해석될 수 있으나, 다문화 미술교육 연구의 주제 자체가 학교 안과 밖, 혹은 초등교육, 고등교육 등을 분류된다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즉 한국의 다문화 미술교육 담론에서 반드시 다루어야 하는 핵심적인 주제들에 대한 논의보다는 당장 학교 안에서 어떻게 교육과정에 다문화교육을 반영하고 교육과정을 개편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향후 미술교육 분야에서는 세계화 속에서 급속하게 진행되어 온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에 대응하는 다문화 미술교육의 핵심이 무엇이며 이를 가능하게 하는 미술의 가치가 무엇인가에 대한 보다 근원적인 논의와 개념 정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제까지의 연구에서 이와 같은 물음에 대한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보다 많은 연구자들의 참여 속에서 연속성 있는 학술적 대화를 통하여 한국 다문화 미술교육의 방향을 수립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시점이다.

본 연구는 지난 16년간의 한국 다문화 미술교육 연구를 되돌아보고 그 흐름을 조망하여 향후 연구주제 설정을 돕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또한 문헌분석 연구에 있어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활용함으로써 학술 연구가 가지는 비정형화 데이터로서의 특성을 고려함과 동시에 통계적이고 양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독창성을 찾아볼 수 있다. 비록 연구동향에 관한 메타 문헌연구로서 교육 현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데에는 한계를 가질 수 있으나, 본 연구를 토대로 다문화 미술교육 연구에 관

한 의미 있는 연구 주제가 도출되고 다양한 연구가 실행됨으로써 사회적 변화에 기여할 수 있는 다문화 미술교육의 담론이 확산되길 기대한다.

국문요약

최근 한국적 다문화교육의 특수성을 반영하되, 특정 소수 집단의 동화 혹은 사회적응에 제한되지 않은 다문화주의 담론 형성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미술교육 연구의 동향을 보다 객관적이고 통계적인 기반에서 탐구하고자 2000~2015년에 발표된 학술지 및 박사 학위 논문 80편 가운데 68편을 분석 대상으로 그간의 연구에서 사용된 키워드를 도출하고 키워드 간의 상관관계를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다문화 미술교육의 연구 동향과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한 두 가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한국의 다문화 상황을 정확히 분석하고 반영하는 연구가 미흡하다. 따라서 다원화되는 한국 사회에서 당면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과제에 대한 보다 면밀한 분석과 이에 대한 미술 교육적 해법을 찾기 위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다문화 미술교육 연구에서 다루어 온 주제들은 유아교육과 고등교육을 포괄하는 폭넓은 학교급을 대상으로 이루어져왔다. 한국의 다문화 미술교육 담론에서 다루어야 하는 핵심적인 주제들에 대한 논의보다는 학교 안에서 어떻게 교육과정에 다문화교육을 반영하고 교육과정을 개편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에 대응하는 다문화 미술교육의 핵심과 미술의 가치 대한 보다 근원적인 논의와 개념 정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지난 16년간의 한국 다문화 미술교육 연구를 되돌아보고 그 흐름을 조망하여 향후 연구주제 설정을 돕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주제어 : 다문화 미술교육, 연구동향 분석, 빅데이터 분석, 텍스트마이닝 기법, 토픽 모델링

참고문헌

- 고흥규 (2015). 한국의 다문화교육 담론에 대한 비판적 논의의 고찰과 미술교육에의 시사점에 관한 연구. **미술교육논총**, 29(1), 109-131.
- [Koh, H. K. (2015). A study on critical discourses about Korean multicultural education and their meanings for Korean multicultural art education. *Art Education Research Review*, 29(1), 109-131.]

- 교육과학기술부 (2008). **다문화교육정책 국제 비교연구**.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Ministry of Education and Science Technology (2008). **Multicultural education policies international comparative study**. Seoul, South Korea: Ministry of Education.]
- 교육부 (2016). **2016년 다문화 학생 교육지원 계획 발표 보도자료**. 서울: 교육부.
 [Ministry of Education (2016). **2016 Multicultural student educational support plan press release**. Seoul, South Korea: Ministry of Education.]
- 구주나, 김경아 (2014). 한국어 텍스트마이닝의 특성과 2011 한국 경제총조사 자료에의 응용. **응용통계연구** 27(7), 1207-1217.
- [Goo, J. N., & Kim, K. A. (2014). Text mining for Korean: Characteristics and application to 2011 Korean economic census data. *The Korean Journal of Applied Statistics*, 27(7), 1207-1217.]
- 김동성, 김종우 (2014).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논문의 서지정보 및 인용정보를 활용한 연구 동향 분석: 사회 네트워크 분석의 활용. **한국지능정보시스템학회**, 20(1), 195-211.
- [Kim, D. S., & Kim, J. W. (2014). Research trend analysis using bibliographic information and citations of cloud computing articles: Application of social network analysis. *Journal of Korea Intelligent Information Systems Society*, 20(1), 195-211.]
- 김민환 (2010). 다문화 교육에 관한 연구 경향과 과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0(1), 61-86.
- [Kim, M. H. (2010). Critical review on the research trends and tasks of multicultural education in Korea.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0(1), 61-86.]
- 김선아 (2011). 다문화미술교육을 위한 교사교육의 방향 탐색. **미술과교육**, 12(1), 27-50.
- [Kim, S. A. (2011). Preparing art teachers for multicultural education. *Journal of Research in Art Education*, 12(1), 27-50.]
- 김선아 (2014). 미술 교사의 다문화 감수성 개발을 위한 교사교육의 실천적 방안 탐색. **조형교육**, 49, 55-73.
- [Kim, S. A. (2014). Study on the development of Art teacher's multicultural sensitivity in teacher education. *Art Education Review*, 49, 55-73.]
- 김선아, 이삼형, 김종우, 김시정, 김동성 (2015). 융복합 교육을 위한 미술과-국어과 교육과정 분석 연구: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중심으로. **미술교육논총**, 29(1), 1-24.
- [Kim, S. A., Lee, S. H., Kim, J. W., Kim, S. J., & Kim, D. S. (2015). Analysis of the national curriculum of Korean language and art for convergence education: Based on text mining. *Art Education Research Review*, 29(1), 1-24.]
- 김성숙 (2011). 다문화 시대, 미술교육의 사회적 역할과 과제. **미술교육논총**, 29, 1-22.
- [Kim, S. S. (2011). The social role and tasks of art education in the multicultural society. *Art Education Research Review*, 29, 1-22.]
- 김영희 (2010). **정서를 통한 다문화 미술교육 지도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 [Kim, Y. H. (2010). *Research on a method of multi-cultural art education using emo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Cheongju, South Korea.]
- 김정희 (2013). 사회통합을 위한 다문화교육 실천에 대한 논의: 독일 바이에른 주의 학교, 박물관, 사회적 기업 교육 사례 중심으로. **문화예술교육연구**, 8(4), 71-86.
- [Kim, J. H. (2013). A study on the practice of multicultural education for social integration. *Korean journal of culture and arts education studies*, 8(4), 71-86.]
- 김현희, 이혜영 (2016). 토픽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한 데이터 마이닝 분야 연구 논문 분석. **한국 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21(5), 141-148.
- [Kim, H. H., & Rhee, H. Y. (2016). Trend analysis of data mining research using topic network analysis. *Journal of Intelligence and Information Systems*, 21(5), 141-148.]

- 김형숙, 남기현 (2012). 문화정체성 구축을 위한 다문화미술교육: 디아스포라 작가 탐구를 통한 실행연구. **미술과교육**, 13(2), 63-85.
- [Kim, H. S., & Nam, K. H. (2012). Multicultural art education through cultural identity inquiry about diaspora artists. *Journal of Research in Art Education*, 13(2), 63-85.]
- 노정순 (2008). 문헌정보학분야에서 메타분석 연구에 관한 고찰.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2(1), 45-61.
- [No, J. S. (2008). A review of the meta-analysis i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2(1), 45-61.]
- 박수정, 최연실 (2010).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생활적응 향상을 위한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 검증: 동적 학교생활화(KSD)에 의한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8(6), 1-18.
- [Park, S. J., & Choi, Y. S. (2010). Development and effectiveness verification of a group art therapy program for improving school life adaptation of children in multicultural families: Focusing on analysis by kinetic school drawing(KSD). *Journal of Korean Management Association*, 28(6), 1-18.]
- 박순덕, 김영순 (2012). 미술과 교육과정분석을 통한 다문화미술교육 방향 연구: 2009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미술과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조형교육**, 26(2), 331-358.
- [Park, S. D., & Kim, Y. S. (2012). A study on multicultural art education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2009 revision of the Korean national art curriculum. *Art Education Research Review*, 26(2), 331-358.]
- 박순덕, 선곡유화, 이영선 (2013). 국내 다문화 미술교육 프로그램 분석. **교원교육**, 29(4), 73-91.
- [Park, S. D., Seongok, Y. H., & Lee, Y. S. (2013). A systematic review of multicultural art education programs for school aged students in Korea. *Korean Journal of Teacher Education*, 29(4), 73-91.]
- 박순덕, 김영순 (2014). **초등학교 다문화미술교육의 방향**. 김영순 외 공저(편). 다문화교육연구의 이론과 적용 (pp. 144-164). 파주: 한국학술정보.
- [Park, S. D., & Kim, Y. S. (2014). *The direction of multicultural art education in elementary Education*. In Kim, Y. S. et.al. (Eds). *The theory and application of multicultural education research* (pp. 144-164). Paju, South Korea: Korean Studies Information.]
- 박휴용 (2016). **다문화교육론**. 서울: 동문사.
- [Park, H. Y. (2016). *Theories in multicultural education*(Damunhwa-gyoyukron). Seoul, South Korea: Dongmunsa.]
- 서덕희 외 (2015). **다문화사회와 교육**. 파주: 교육과학사.
- [Seo, D. H., et al. (2015). *Multicultural society and education*(Damunhwasahoewa-gyoyuk). Paju, South Korea: Kyoyookbook.]
- 손지현 (2010). 다문화 미술교육의 접근 방안 연구. **미술교육연구논총**, 31, 167-190.
- [Sohn, J. H. (2010). A study on approaches to practice in multicultural art education. *Journal of art education*, 31, 167-190.]
- 손지현 (2014). **다문화 미술교육: 타인의 문제에서 우리의 문제로**. 한국조형교육학회 공저(편). 꼭 읽어야 할 한국미술교육 40선 (pp. 113-126). 경기: 미진사.
- [Sohn, J. H. (2014). *Multicultural art education: From the problem of others to the problem of us*. In society for art education of Korea (Eds). *Korean Art Education 40* (pp. 113-126). Gyeonggi, South Korea: Mijinsa.]
- 송태민, 송주영 (2016). **R을 활용한 소셜 빅데이터 연구방법론**. 서울: 한나래아카데미.
- [Song, T. M., & Song, J. Y. (2016). *Social big data research methodology with R*. (Aleul-hwalyonghan-sosyeol-bikdeiteo-yeongubangbeopron). Seoul, South Korea: Hannarae.]
- 심영옥, 최서윤 (2015). '모두를 위한' 다문화 미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조형교육**, 55, 129-159.
- [Sim, Y. O., & Choi, S. Y. (2015). Multi-cultural art education program development study 'for everyone'.

- Art Education Review*, 55, 129-159.]
- 안혜리 (2011). 다문화 미술교육의 현황과 대안: 동시대 미술을 통해 '타자(他者)'의 목소리 듣기. **미술교육논총**, 25(3), 1-25.
- [Ahn, H. R. (2011). The current status of multicultural art education and its alternative approach: Listening to the other through contemporary art. *Art Education Research Review*, 25(3), 1-25.]
- 양정숙 (2000). **포스트모더니즘과 다문화 미술교육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 [Yang, J. S. (2000). *A study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ost-modernism and multicultural art educa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Cheongju, South Korea.]
- 윤민희 (2013). 다문화시대의 국내대학 조형교육에 관한 연구.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19(3), 489-500.
- [Yun, M. H. (2013). A study on the Korean formative arts education in the multicultural er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Design Culture*, 19(3), 489-500.]
- 이기용, 이진남 (2013). 국내 학술지에 게재된 다문화교육 관련 연구동향 분석; 유아교육 중심으로. **실과교육연구**, 19(4), 297-317.
- [Lee, K. Y., & Lee, K. N. (2013). Multicultural education,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Trends. *Journal of Korean Practical Arts Education*, 19(4), 297-317.]
- 이민정 (2014). 삶 속의 다문화 미술교육과 미학적 접근방안. **미술교육연구논총**, 37, 1-24.
- [Lee, M. J. (2014). An aesthetic approach to multicultural art education in life. *Journal of art education*, 37, 1-24.]
- 이성훈, 이동우 (2013). 빅데이터의 국내·외 활용 고찰 및 시사점. **디지털융복합연구**, 11(2), 229-233.
- [Lee, S. H., & Lee, D. W. (2013). Current status of big data utilization.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1(2), 229-233.]
- 이수상 (2014). 언어 네트워크 분석 방법을 활용한 학술논문의 내용분석. **한국정보관리학회지**, 31(4), 49-68.
- [Lee, S. S. (2014). A content analysis of journal articles using the language network analysis method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1(4), 49-68.]
- 이형하 외 (2015). **다문화사회와 다문화교육의 이해**. 경기: 공동체.
- [Lee, H. H., et al. (2015). *Multicultural society and multicultural education* (Damunhwasaohiwadamunhwagyoyukui-ihae). Gyeonggi, South Korea: Knowledge Community.]
- 이옥선 (1999). 맥피(McFee)의 미술교육사상과 방법론연구: 다원주의(pluralism)를 중심으로. **미술교육논총**, 8, 91-114.
- [Lee, O. S. (1999). A study on J. K. McFee's ideology and methodology of art education. *Art Education Research Review*, 8, 91-144.]
- 이혜진, 장석진 (2011). 다문화가정 자녀의 자아탄력성 향상을 위한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의 효과. **미술치료연구**, 19(4), 837-858.
- [Lee, H. J., & Jang, S. J. (2011). The development and effects of group art therapy for improving ego-resilience of children in multi-cultural families. *Korean Journal of Art Therapy*, 19(4), 837-858.]
- 장인실, 차경희 (2012). 한국 다문화교육의 연구동향 분석: Benneett이론에 근거하여. **교육학연구**, 18(1), 208-302.
- [Jang, I. S., & Cha, K. H. (2012). Analysis of multicultural education research trends in Korea. *The Korea Educational Review*, 18(1), 208-302.]
- 장재영 (2013). 텍스트마이닝을 위한 그래프 기반 텍스트 표현 모델의 연구 동향.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 논문지**, 13(5), 37-47.
- [Jang, J. Y. (2013). A study on research trends of graph-based text representations for text mining. *The*

- [Jang, J. I., & Baik, J. M. (2016). Automatic prioritization of requirements using topic modeling and stakeholder needs-artifacts. *Journal of KIISE, JOK*, 43(2), 196-203.]
- 장종인, 백종문 (2016). 토픽 모델링과 이해관계자 요구 산출물을 이용한 요구사항 자동 우선순위화. **정보과학회논문지**, 43(2), 196-203.
- [Jang, J. I., & Baik, J. M. (2016). Automatic prioritization of requirements using topic modeling and stakeholder needs-artifacts. *Journal of KIISE, JOK*, 43(2), 196-203.]
- 전재영 (2011). 다문화교육 연구의 메타 분석적 접근. **초등도덕교육**, 35, 29-54.
- [Jun, J. Y. (2011). Meta-analytic approach on research of multicultural education. *Elementary Moral Education*, 35, 29-54.]
- 정혜연 (2014). 다름에서 다양으로: 아동의 문화적 포용력 증진을 위한 박물관/미술관 교육. **예술교육연구**, 12(4), 33-46.
- [Chung, H. Y. (2014). From difference to diversity: Museum education for enhancing cultural tolerance. *The Korean Journal of Arts Education*, 12(4), 33-46.]
- 조태현, 김경식 (2009). 반편견 다문화 교육 시각에서 중학교 미술교과서 분석. **다문화교육**, 2(1), 99-129.
- [Cho, T. H., & Kim, K. S. (2009). Analysis of middle school art-textbook in point of non-prejudice multicultural education. *Multicultural Education Review*, 2(1), 99-129.]
- 조희원 (2014). 한국의 다문화주의와 단일민족주의: 공존과 사회적 통합을 중심으로. **분쟁해결연구**, 12(2), 5-30.
- [Jo, H. W. (2014). Multiculturalism and homogenous nationalism in Korea: Focusing on coexistence and social integration. *Dispute Revolution Studies Review*, 12(2), 5-30.]
- 차운경 (2008). 세계화 시대의 대안적 교육모델로서의 다문화 교육. **다문화교육**, 1(1), 1-24.
- [Cha, Y. K. (2008). Multicultural education as an alternative educational model in the era of globalization. *Multicultural Education Review*, 1(1), 1-24.]
- 채영란, 유승우 (2014).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의 연구 동향: 1999년 이후의 학위 논문 및 학술지를 중심으로. **유아교육학논집**, 18(6), 551-571.
- [Chae, Y. R., & You, S. W. (2014). Analysis of research trends in multicultural education program in Korea.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 Review*, 18(6), 551-571.]
- 최충욱 (2009). 외국의 다문화교육정책 동향과 시사점. **비교교육연구**, 19(2), 175-191.
- [Choi, C. O. (2009). Implications for multicultural education from the recent trends of education policy in foreign countries. *Korean Journal of Comparative Education*, 19(2), 175-191.]
- 최충욱, 조인제 (2010). 다문화교육 연구의 동향과 향후 과제. **다문화교육**, 1(1), 1-20.
- [Choi, C. O., & Jo, I. J. (2010). A study on the research trends and tasks of multicultural education in Korea. *Multicultural Education Review*, 1(1), 1-20.]
- 최호림 (2015). 한국 다문화사회의 진전과 동아시아의 이주 : 현황과 쟁점. **동북아문화연구**, 42, 35-55.
- [Choi, H. R. (2015). Rethinking multiculturalism in Korea and transnational migration. *Journal of North-east Asian Cultures*, 42, 35-55.]
- 행정자치부 (2015). **외국인주민 현황**. 서울: 행정자치부.
- [Ministry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Home Affairs (2015). *Statistics of foreign immigrants*. Seoul, South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Home Affairs.]
- 홍창호 (2012). DBAE에 기초한 미술프로그램이 아동의 다문화 인식과 반편견 정서에 미치는 영향: 충남 서산시 C초등학교 미술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미술교육논총**, 26(3), 23-56.
- [Hong, C. H. (2012). A study on the effect of DBAE-based art program on the 3rd graders' recognition and anti-bias on multi-culturalism: Focusing on the elementary school 'C' at Chungnam province. *Art Education Research Review*, 26(3), 23-56.]

- Banks, J. (2009). *An introduction to multicultural education* (4th ed) [다문화교육 입문]. (Translated into Korean by K. H. Mo, C. O. Choi, M. J. Kim, & J. S. Im). Paju, South Korea: Academy Press. (Original work published 2008)
- Campbell, D. E. (2012). *Choosing democracy: a practical guide to multicultural education* (4th ed) [민주주의와 다문화교육: 다문화교육을 위한 실천적 가이드]. (Translated into Korean by Y. S. Kim et al.). Paju, South Korea: Kyoyookbook. (Original work published 2010)

김선아 (sakim22@hanyang.ac.kr)

한양대학교 사범대학 응용미술교육과에 재직 중이며, 동 대학 응용미술학과 및 다문화교육학과 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임. 미술과 교육과정 및 평가, 미술교사 전문성, 교사교육, 다문화미술교육, 질적 연구방법론이 주요 연구 주제임.

박진희 (jini2141@naver.com)

한양대학교 다문화교육학과에서 다문화미술교육전공 박사 과정중이며, 현재 경기북부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굿네이버스 심리정서지원사업팀에 치료사로 근무 중임.

이현정 (d6guswd6@hanmail.net)

한양대학교 응용미술학과에서 미술교육전공 석사 과정중이며, 현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육과정·교과서본부 학교체육·예술교육특임센터 연구조원으로 재직 중임.

정유진 (matan-e@hanmail.net)

한양대학교 다문화교육학과에서 다문화미술교육전공 박사 수료하였으며, 현재 다수 국립/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의 에듀케이터로 활동 중임.